

# 상해박초간 『주역』의 亡(无)忘(妄)卦 고찰

원 용 준 \*

<目次>

|  |  |
|--|--|
| I. 머리말                                 | IV. 亡(无)忘(妄)卦 六二 효사                        |
| II. 亡(无)忘(妄)卦(제20호간-제21호간)의 釋文, 釋讀, 부호 | “不耨(耕)而穰(穫)”에 대하여                          |
| III. 亡(无)忘(妄)卦의 과명                     | V. 출토자료 『주역』과 문헌자료 비교 연구의 가능성<br>-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 초록>

이 논문은 1994년 홍콩의 문물시장에서 발견된 上海博楚簡 『周易』의 亡(无)忘(妄)卦를 고찰하여 선진시기 『주역』의 모습을 복원하고, 당시의 사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규명한 것이다.

상해박초간 『주역』 亡(无)忘(妄)卦는 제20호간과 제21호간 2매의 죽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20호간은 부러져서 13.7cm 정도가 없어졌는데 이를 복원하면 “□, [禾又亩] 蓬. 六晶, 亡忘之菑, 或繫之牛, 行]”의 16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괘의 卦名 ‘无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馬王堆帛書 『易傳』 「昭力」, 通行本 「序卦傳」, 『周易正義』 및 기타문헌자료에 의하면 선진시기 『주역』의 ‘无妄’의 의미는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는 것이다.

상해박초간 『주역』 亡(无)忘(妄)卦의 六二 爻辭에 “不耨而穰”이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 부분은 通行本 『주역』은 “不耕穰”으로 되어 있지만, 馬王堆帛書 『易

\*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 / musco88@hanmail.net

傳』「昭力」, 馬王堆帛書『易傳』「易之義」, 通行本『禮記』「坊記」 등의 인용문을 통해 선진시기 『주역』에는 “不耕而穫”으로 쓰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절은 농경사회에서 생겨나 추상화, 일반화가 진행되어 전국시기-전한초기 사회에 널리 사용되던 전쟁 관련 속담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주역』 효사에는 고대 사회의 속담에서 유래한 것이 있다는 선행 연구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된다. 또 그 내용이 불노소득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漢代 유가들은 불노소득을 하면 흉하다는 교훈적 의미로 경전 구문을 바꾸려는 시도도 하였다. 이것은 유교사상과 아무 관련이 없던 패효사가 『주역』 이 유교경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유교사상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때로는 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周易, 上海博楚簡, 无妄, 馬王堆帛書, 유가

## I. 머리말

이 논문은 1994년 홍콩의 문물시장에서 발견된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周易』(이하 상해박초간 『주역』 혹은 상해박초간본으로 약칭) 亡(无)忘(妄)卦의 고찰을 통해 선진시기 『주역』의 모습을 복원하고, 『주역』이 점서에서 유교경전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해박초간은 1994년 홍콩의 문물시장에서 도굴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해에 상해박물관측이 이를 입수, 정리하여 그 도판(죽간 사진) 및 『釋文考釋』을 2001년부터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상해박초간의 발견 경위 및 정리 상황에 대해서는 馬承源 주편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上海古籍出版社, 2001년)에 수록되어 있는 「前言:戰國楚竹書的發現保護和整理」를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한다.<sup>1)</sup>

1)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 시리즈는 2001년 11월 上海上海古籍出版社에서 제1권이 발간되었고, 2011년 현재 제8권까지 발간된 상태다. 『주역』의 도판

상해박초간 『주역』의 서사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주역』 텍스트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sup>2)</sup> 현재 공표된 사진 도판에 의하면 전부 58매의 죽간에 총 34괘의 내용만 남아 있다. 아마도 원래는 64괘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 결실되었다고 여겨진다. 상해박초간본에는 『易傳』 즉 통행본 『주역』의 十翼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출토자료 『주역』 텍스트는 총 3종이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서 다룰 상해박초간본 이외에도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湖南省 長沙市 馬王堆 漢墓에서 帛書 『주역』(이하 마왕퇴백서 『주역』 혹은 마왕퇴본으로 약칭)이 출토되었으며, 1977년 安徽省 阜陽縣 雙古堆 西漢汝陰侯墓에서 漢簡 『주역』(이하 부양한간 『주역』 혹은 부양한간본으로 약칭)이 출토되었다.

상해박초간 『주역』까지 포함하여 이들 3종류의 출토자료 『주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이하에서는 통행본 『주역』으로 약칭)과 동일 선상에 있는 텍스트라고 인정되지만, 일부 문자, 문단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이 드러난 곳이 바로 상해박초간 『주역』 제20호간~제21호간의 亡(无)忘(妄)괘라고 할 수 있다.

출토자료 중에서 『노자』, 『주역』 등과 같이 현대에도 동일 텍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후대의 연구 성과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견이 생기기 쉽다. 즉 고대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상과 사고를 편입시

및 석문은 馬承源 주편,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 上海古籍出版社, 2003.에 수록되어 있다.


2) 상해박초간의 初寫 연대에 대해서는 馬承源 전 상해박물관장이 「前言:戰國楚竹書的發現保護和整理」에서 전국시대 만기로 추정할 이래,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아서, 연구자에 따라 전국시대 중기부터 전한초기까지 이르고 있다. 상해박초간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및 성립 연대 고증의 문제는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해박초간의 조사연대에 대하여 상세한 고증은 피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국시대 후기에서 진통일 이전까지의 어느 한 시점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키는 오류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해박초간 『주역』의 亡(无)忘(妄)괘를 마왕퇴본, 부양한간본, 현행본과의 비교, 고찰을 실시하고 아울러 고대의 문헌과도 비교, 검토하여 선진시기 『주역』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선진시기 『주역』의 일면뿐만 아니라 전국~전한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주역』이 가지는 사상사적 면모도 밝힐 것이다.<sup>3)</sup>

## II. 亡(无)忘(妄)卦(제20호간-제21호간)의 釋文, 釋讀, 부호

상해박초간 『주역』 亡(无)忘(妄)卦는 제20호간과 제21호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죽간의 번호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최초로 죽간을 정리하고 「석문고석」을 작성한 濮茅左가 임의로 붙인 번호이다. 상해박초간 『주역』은 전국시대 초문자로 쓰여 있는데, 공표된 도판을 통해 초문자를 판독하여 <釋文>, <釋讀>을 만들면 아래와 같다.<sup>4)</sup>

### <釋文>

(제20호간)  亡忘. [■]元卿, 初自. 元非遺又眞, 不初又凶蓬. 初九, 亡忘,

3) 상해박초간 『주역』을 위시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든 출토자료의 문자는 기존의 釋文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필자가 일일이 도판을 확인하고 고문자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판정[隸定]하였다. 다만 본 논문의 목적이 문자 고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문자 고증은 생략한다. 자세한 문자 고증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季旭昇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 萬卷樓, 2005.

濮茅左, 『楚竹書『周易』研究』上/下, 上海古籍出版社, 2006.

池田知久 監修, 『上海博楚簡の研究』(二), 大東文化大學 上海博楚簡研究班, 2008.

4) <釋文>은 죽간에 쓰인 글자의 형태[字形]를 直寫하여 현재의 해서체 형식으로 재현한 것이다. 따라서 자형의 재현만을 실시하였을 뿐, 그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즉 가차자, 이체자, 錯字 등의 풀이는 하지 않았다. <釋讀>은 <釋文>에서 재현한 한자의 의미를 구명하여 그와 상응하는 현재의 한자로 확정된 것이다.

吉. 六二, 不耕而穫, 不畜之口, [利又貞]. 六三, 亡忘之災, 或繫之牛, 行

(제21호간) 人之旻, 邑人之災. 九四, 可貞, 亡咎. 九五, 亡忘又疾, 勿藥又榮. 上九, 亡忘, 行又冀, 亡貞利. ■

<釋讀>

(제20호간) 无妄.[■]元亨, 利貞. 其非復有眚, 不利有攸往. 初九, 无妄, 吉. 六二, 不耕而穫, 不畜之口, [利有攸往]. 六三, 无妄之災, 或繫之牛, 行

(제21호간) 人之得, 邑人之災. 九四, 可貞, 无咎. 九五, 无妄有疾, 勿藥有喜. 上九, 无妄, 行有眚, 无攸利. ■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에 실려 있는 《도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20호간은 중간에서 부러져 아래 부분이 없어졌다. 아래의 《그림 1》은 《도판》에 의거하여 제20호간의 죽간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한편, 제21호간은 두 군데가 부러져서 세 조각 난 것을 첩합하여 하나의 죽간으로 만든 것이다. 濮茅左는 제20호간에 대해 “본간은 ‘亡(无)忘’괘의 首簡으로 길이는 29.1cm이고, 죽간의 상단은 완전하지만, 하단은 파손되어 없어졌다. 현재 30자와 하나의 괘획이 남아있고, 괘명 다음에 부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sup>5)</sup> 또한 제20호간의 없어진 부분에 대하여 濮茅左는 통행본에 의거해 “則利有攸往. 六三, 无妄之災, 或繫之牛, 行”의 16자를 보충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부분이 부러져 없어진 제20호간의 길이는 29.1cm다. 상해박초간 『주역』의 완전한 죽간의 길이는 약 44cm이기 때문에 제20호간은 아래 부분이 약 14.9cm 정도 결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해박초간 『주역』의 경우 죽간의 상단에서 첫 계구(契口)까지,<sup>6)</sup> 그리고 세 번째 계구에서 하

5) 濮茅左, 『釋文考釋』,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上海古籍出版社, 2003.)에 수록. 이하에서 濮茅左의 『釋文考釋』을 언급할 때에는 濮茅左의 이름만 칭한다.

6) 契口란 끈을 묶기 위해 죽간 측면을 V형으로 깎아 놓은 곳으로 보통 죽간

단까지의 약 1.2cm정도는 문자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14.9cm의 결손 부분에서 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약 13.7cm이다. 상해박초간 『주역』의 한 글자는 약 0.9cm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13.7cm의 공간에는 약 15~16자 정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마왕퇴본, 통행본의 내용을 고려하고 다음 죽간인 제21호간의 첫 글자가 ‘人’인 점을 감안하여 “□,

[耒又鹵蓬. 六晶, 亡忘之災, 或繫之牛, 行]”의 16자를 보충해 넣기로 한다.<sup>7)</sup>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不耨之” 아래의 한 글자는 ‘則’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則’이라면 “不耕而穫, 不畜之則”이 되어 이 두 구절이 대구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 마왕퇴본과 통행본을 참고하더라도 이 두 구절이 대구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不耨之”의 아래 자를 한 글자의 알 수 없는 글자(□)로 처리해 둔다. “不耨之□”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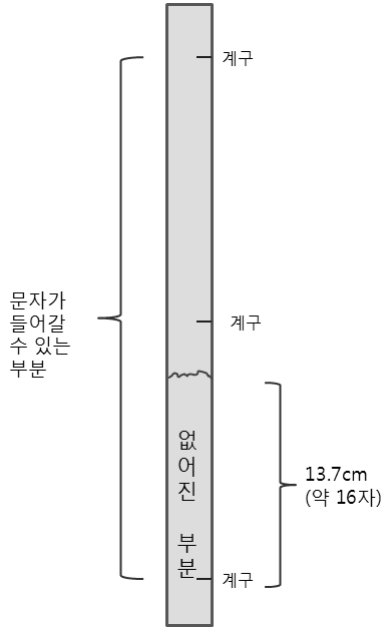


그림 1 - 제20호간의 상태

참고로 마왕퇴본과 부양한간본, 통행본의 무망괘는 아래와 같다.

우측에 위치한다. 상해박초간 『주역』의 경우 상단, 중단, 하단의 세 곳에 계구가 있다.

7) 통행본의 ‘耒’, ‘有’, ‘攸’, ‘往’, ‘三’, ‘无’, ‘妄’, ‘災’는 상해박초간본에서는 ‘耒’, ‘又’, ‘鹵’, ‘蓬’, ‘晶’, ‘亡’, ‘忘’, ‘災’로 쓰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글자를 보충하여 넣었다.

마왕퇴백서 『주역』 无孟(妄)괘 (제8행)<sup>8)</sup>

☶无孟(妄). 元亨, 利貞. 非正有省(眚), 不利有攸往. 初九, 无孟(妄), 往吉. 六二, 不耕穫, 不菑餘(畲), 利□□□. 六三, 无□□□, 或擊(繫)□□, □□之得, 邑人之茲(災). 九四, 可貞, 无咎. 九五, 无孟(妄)之疾, 勿樂(藥)有喜. 尙(上)九, 无孟(妄)之行, 有省(眚), 无攸利.

부양한간 『주역』 无亡(妄)괘 (제125호간~제128호간)<sup>9)</sup>

(제125호간) ☶无亡(妄). 元亨, 利貞. 其非正(征)有眚, 不利有攸(攸)往. 卜雨不雨不□……

(제126호간) ……齊齊不吏(事)君, 不吉. 田魚不得. ●初九, 无亡(妄), 往吉. 卜田魚得而 ……

(제127호간) ……不耕穫, 不……

(제128호간) ……九四, 可貞, 无咎……

통행본 无妄괘

☶无妄. 元亨, 利貞. 其匪正有眚, 不利有攸往. 初九, 无妄, 往吉. 六二, 不耕穫, 不菑畲, 則利有攸往. 六三, 无妄之災, 或繫之牛, 行人之得, 邑人之災. 九四, 可貞, 无咎. 九五, 无妄之疾, 勿藥有喜. 上九, 无妄, 行有眚, 无攸利.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해박초간 『주역』에 존재하는 독특한 사각형의 부호다. 상해박초간 『주역』의 현존하는 죽간은 모두 괘명 아래와 상호 효사 끝의 두 군데에 총 11종의 적색과 흑색의 사각형 부호가 있다.<sup>10)</sup> 이 부호는 괘명 아래의 것을 首符, 상호 효사 끝의 것을 尾符라

8) 마왕퇴백서 『주역』은 저본으로 張政烺, 『馬王堆帛書『周易』經傳校讀』(中華書局, 2008.)의 도판을 이용하였다. 마왕퇴본 역시 상해박초간과 마찬가지로 <석문>, <석독>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너무 번잡해지기 때문에 편의상 ( )를 이용하여 한 곳에서 처리하였다. 이하의 부양한간본도 마찬가지.

9) 부양한간 『주역』은 저본으로 韓自強, 『阜陽漢簡『周易』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4.)의 도판을 이용하였다.

10) 상해박초간 『주역』의 부호에 대해서는 원용준, 「上海博楚簡『周易』의 부호와 그 의미」(『한국철학논집』 제3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를 참조.

고 부르며, 각 괘의 首符와 尾符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호를 사용한다. 그런데 제20호간의 亡(无)忘(妄)卦의 경우 괘명 아래 있어야 할 首符가 없다. 상해박초간 『주역』에서 首符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제20호간이 유일하다. 원래 괘명 ‘亡忘’ 아래 首符가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墨跡이 마멸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괘의 부호가 모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특히 같은 부호였으리라 생각되는 아래 제22호간의 大筮(畜)괘의 수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그림》2 참조)을 감안하면 제20호간에는 처음부터 首符가 존재하지 않았던 듯하다. 亡(无)忘(妄)卦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首符를 서사하지 않은 것일까? 그 정확한 진위는 알기 어렵지만, 본괘의 尾符는 ‘■’ (작은 흑색사각형, 《도판》 참조)로, 首符도 같은 부호로 기재해야 하는 것을 抄寫者가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다른 괘의 경우와 비교하면 首符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해박초간 『주역』은 따라서 본괘의 尾符와 동일한 ‘■’를 보충하기로 한다.

### Ⅲ. 亡(无)忘(妄)卦의 괘명

괘명 ‘亡忘’에 대한 濮茅左의 견해를 보면 ‘亡’은 ‘无’로 읽고 있지만, ‘忘’은 如字로 읽어 ‘棄’, ‘遺’의 의미라고 하고, 부양한간본의 ‘亡’, 마왕퇴본의 ‘孟’, 통행본의 ‘妄’은 모두 ‘忘’의 가차자라고 한다. 濮茅左의 견해대로라면 본괘의 괘명은 ‘无忘’이 되어 ‘잊음이 없음’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无忘’으로 괘효사 전체를 통괄하여 보면 ‘잊음이 없다’고 해석는 괘효사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 같지 않다. 본괘의 괘명을 확정하고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고찰이 필요할 듯하다.

초간에서 ‘亡’이 ‘無(无)’의 가차자로 쓰이는 경우는 자주 보이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점초간 『노자』 제1호간의 “規惻亡又”

는 통행본 『노자』 제19장에 “盜賊無有”로 되어 있어, 亡이 無의 가차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상해박초간의 괘명 ‘亡忘’의 ‘亡’을 ‘无’의 가차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忘’자인데 상해박초간본이 ‘忘’, 마왕퇴본이 ‘孟’, 부양한간본이 ‘亡’, 통행본이 ‘妄’으로 쓰고 있어서 모두 다르다. 음운상으로는 이들 문자는 모두 上古음이 明母, 陽部의 글자이기 때문에 서로 通假될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음운학적인 고찰보다는 내용을 통해 정확한 괘명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마왕퇴백서 『易傳』 및 통행본 역전에 보이는 본괘의 괘명에 대한 풀이는 아래와 같다.

无孟의 괘는 죄가 있으면 죽지만, 공적이 없더라도 포상을 받을 수 있으니 所以畚故□.<sup>13)</sup> (마왕퇴백서 『역전』 「易之義」)

64괘를 견주어 보면 온 우주를 다 궁구할 수 있으니 아래의 4가지 괘가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旅괘의 ‘潛斧’는 상인이 지켜야 할 도의이고, 无孟의 괘는 윤도가 지켜야 할 도의이며, 无孟괘의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수확이 있다.”는 것은 군대가 지켜야 할 도의이고, 歸妹괘의 “아름다운 달이 거의 다 찬 것”은 처녀가 지켜야 할 도의이다.<sup>14)</sup> (마왕퇴백서 『역전』 「昭力」)

돌아오면 망령되지 않으므로 무망괘로 받았다. 망령됨이 없어야만 모일 수 있으므로 大畜괘로 받았다.<sup>15)</sup> (통행본 「序卦傳」)

- 
- 11) 고대 중국에서 ‘亡’과 ‘無’가 통용되는 용례는 王輝, 『古文字通假字典』(中華書局, 2008, pp.126-127.)이 모아 놓은 것을 참조.
  - 12) 본 논문에서 上古음을 제시할 경우 그 상고음은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商務印書館, 2010.)에 의거하였다.
  - 13) 마왕퇴백서 『역전』 「易之義」, “无孟之卦, 有罪而死, 无功而賞, 所以畚故□.”
  - 14) 마왕퇴백서 『역전』 「昭力」, “比卦六十又(有)四, 冬(終)六合之內, 四勿(物)之卦, 何不又(有)焉. [旅]之潛斧, 商夫之義也. 无孟之卦, 邑途之義也. 不耕而權<穫>, 戎夫之義也. 良月幾望, 處女之義也.”
  - 15) 통행본 「序卦傳」, “復則不妄矣, 故受之以无妄. 有无妄然後可畜, 故受之以大畜.”

무망은 재앙이다.<sup>16)</sup> (통행본 「雜卦傳」)

(무망괘는) 큰 가뭄의 괘로 만물이 모두 죽음에 처하여 다시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sup>17)</sup> (李鼎祚 『周易集解』 所引의 京房 『周易章句』)

이상의 여러 견해는 ‘无孟’ 혹은 ‘无妄’에 관한 고대의 해설이지만, 그 대부분은 字義를 설명한 것이라기보다 괘의 의미·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 인용문, 즉 京房 『周易章句』는 兩漢時代에 유행한 재이설에 근거하여 「雜卦傳」을 확대시킨 해석이어서 선진시기 『周易』의 본의와 합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들 중, 통행본 「序卦傳」은 ‘妄’을 부정적 이미지로 파악하여 ‘无妄’을 긍정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妄’의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왕퇴백서 『역전』 「昭力」에서도 无孟괘 및 그 六二 효사가 각각 읍도가 지켜야할 도의, 군대가 지켜야할 도의로 여겨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經典釋文』 「周易音義」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무망은 虛妄이 없는 것이다. 『설문해자』에 “妄은 어지럽다는 뜻이다.”라고 한다. 마음, 정현, 왕숙은 모두 “妄은 望과 같다.”고 하니, 희망이 없는 것이다.<sup>18)</sup>

이 풀이는 ‘妄’을 ‘虛妄’으로 여기는 설을 주로 하면서도 ‘亂’이나 ‘望’의 설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주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戰國策』 「楚策四」에는 ‘無妄’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春申君이 초나라의 재상이 되어 25년째 되던 해, 考烈王이 병에 걸렸다. 朱英이 춘신군에게 말하였다.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복(無妄之福)이 있고, 예측

16) 통행본 「雜卦傳」, “无妄, 災也.”

17) 李鼎祚 『周易集解』 所引의 京房 『周易章句』, “大旱之卦, 萬物皆死, 无所復望.”

18) 『경전석문』 「주역음의」, “无妄, 无虛妄也. 說文云, “妄, 亂也.” 馬·鄭·王肅, 皆云, “妄猶望.” 謂无所希望也.”

할 수 없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 주군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찌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춘신군이 말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복이란 무엇인가?” “주군께서는 초의 재상이 되셔서 20여년 되었습니다. 명목은 상국이지만 실제로는 초왕이십니다. 다섯 공자는 모두 제후의 재상입니다. 지금 왕의 병은 깊어 당장이라도 붕어하실 듯하고, 태자도 쇠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주군께서 어린 군주의 재상이 되셔서 이를 이용하여 섭정하셔서 국정을 집행하면 이윤, 주공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왕이 성인이 되면 국정을 돌려주시고, 여의치 않다면 그대로 남면하여 孤라고 칭함으로써 초나라를 소유하십시오. 이것이 이른바 예측할 수 없는 복입니다.” 춘신군이 말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화란 무엇인가?” “李園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의 장인입니다. 군대의 장수는 아닌데 몰래 목숨 바칠 군사를 기른지 오래되었습니다. 초왕이 붕어하면 이원은 반드시 제일 먼저 왕궁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군주의 명령을 속여 권력을 장악한 후 주군을 죽여 입을 다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예측할 수 없는 화입니다.” 춘신군이 말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주군께서는 우선 저를 신하로 삼아 郎中에 임명하십시오. 초왕이 붕어하여 이원이 먼저 왕궁에 들어가면 신은 주군을 위하여 그 가슴을 찢러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춘신군이 말하였다. “선생, 그만하십시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시오. 이원은 유약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소. 어찌 그렇게 죽일 수 있겠소?” 이 대답을 들은 주영은 신분에 위협을 느껴 그대로 도망갔다.<sup>19)</sup>

여기에서 보이는 ‘無妄’은 ‘예측/예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것과

19) 『전국책』 「楚策 4」, “春申君相楚二十五年, 考烈王病. 朱英謂春申君曰, “世有無妄之福, 又有無妄之禍. 今君處無妄之世, 以事無妄之主. 安不有無妄之人乎.” 春申君曰, “何謂無妄之福.” 曰, “君相楚二十餘年矣. 雖名為相國, 實楚王也. 五子皆相諸侯. 今王疾甚, 旦暮且崩, 太子衰弱, 疾而不起. 而君相少主, 因而代立當國, 如伊尹·周公. 王長而反政, 不即遂南面稱孤, 因而有楚國. 此所謂無妄之福也.” 春申君曰, “何謂無妄之禍.” 曰, “李園不治國, 王之舅也. 不為兵將, 而陰養死士之日久矣. 楚王崩, 李園必先入, 據本議制斷君命, 秉權而殺君以滅口. 此所謂無妄之禍也.” 春申君曰, “何謂無妄之人.” 曰, “君先仕臣為郎中. 君王崩, 李園先入, 臣請為君剗其胸殺之. 此所謂無妄之人也.” 春申君曰, “先生置之, 勿復言已. 李園, 軟弱人也. 僕又善之. 又何至此?” 朱英恐, 乃亡去.”

거의 같은 내용의 문장이 『사기』 「春申君列傳」에 보이지만, 「春申君列傳」은 ‘無妄’을 ‘毋望’으로 쓰고 있고, 『史記索隱』은 “『주역』에는 无妄괘가 있지만 그 의미는 이곳과는 다르다. 『周易』有 无妄卦, 其義殊也.”라고 주를 달아서 『주역』 无妄卦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漢書』 「谷永傳」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사악하고 나약한 자에게서 떠나 천명을 현명한 성인에게 옮기는 것은 천지의 常道며, 백왕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덕에는 厚薄이 있고, 시기에는 장단이 있고, 시세에는 한창 때와 말세가 있고, 천도에는 성쇠가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고조이래의 8대의 공업을 이어받아 양수의 말단인 9세에 해당하는데, 3-7 즉 210년이라는 한왕조 재역에 해당하는 절기를 건너고 있고, 무망괘의 운세를 만났으며, 106의 재역을 만났습니다. 이 세 가지 재난은 그 종류를 달리합니다만, 서로 섞여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建始 元年 이래 20년간에 여러 가지 재해와 큰 이변이 교차하여 일어나 『춘추』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중략) 이 三難의 때를 당해 수차례의 재이가 연달아 계속되면서 이에 따라 기근이 일어나고 그 결과 물자 또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sup>20)</sup>

이 문장의 무망괘에 대해 『한서』의 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應劭가 설명하였다. “(중략) 无妄이란 희망이 없는 것이다. 만물이 하늘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이다.” 顏師古가 설명하였다. “『주역』의 무망괘를 취하여 뜻을 삼았다.”<sup>21)</sup>

「谷永傳」은 “无妄의 卦運을 만난다.”는 것을 ‘三難’의 하나로 인식하고

20) 『漢書』 「谷永傳」, “夫去惡奪弱, 遷命賢聖, 天地之常經, 百王之所同也. 加以功德有厚薄, 期質有修短, 時世有中季, 天道有盛衰. 陛下承八世之功業, 當陽數之標季, 涉三七之節紀, 遭无妄之卦運, 直百六之災隄. 三難異科, 雜焉同會. 建始元年以來二十載間, 羣災大異, 交錯鋒起, 多於『春秋』所書. ……乘三難之際會, 畜衆多之災異, 因之以饑饉, 接之以不瞻.”

21) 『漢書』 「谷永傳」의 주, “應劭曰, “……无妄者, 無所望也. 萬物無所望於天, 災異之最大者也.” 師古曰, “取『易』之无妄卦爲義.”

있다는 점에서 본괘를 부정적인 괘로 여기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이 경우 ‘无妄’은 應劭가 말하는 대로 希望이 없다는 의미지만, 谷永의 无妄卦에 대한 이 같은 이해는 상술한 京房 『周易章句』와 동일한 형태의 재이설에 근거한 것이어서 兩漢時代에 유행한 것으로 선진시대 『周易』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周易正義』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无妄이라는 것은 (중략) 사물에게 감히 거짓(詐僞)과 허망이 없으니 모두 실리를 행한다는 것이다.<sup>22)</sup>

즉 ‘无妄’을 거짓(詐僞)과 虛妄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한서』 「谷永傳」과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괘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전래문헌 자료에는 이처럼 ‘无妄’을 거짓과 허망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예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장자』 「在宥」의 아래 문장이다.

또 3년이 지난 다음 雲將이 동쪽으로 놀러 가서 송나라의 들판을 지나가다가 鴻蒙을 만났다. 운장은 크게 기뻐하며 달려 나가 말하였다. “하늘께서는 저를 잊었습니까? 하늘께서는 저를 잊었습니까?” 운장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鴻몽에게 물었다. 鴻몽이 말하였다. “나는 이리저리 떠돌며 구하는 바를 모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며 갈 곳을 모른다. 단지 바빠 노닐면서 거짓이 없는 진실을 볼 뿐이다.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sup>23)</sup>

여기에서 ‘无妄’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장자』 「德充符」에는 이것과 유사한 ‘无假’라는 말도 보여 假象이 아닌 진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道家가 가장 중시하는 개념인 ‘道’의 성질의 하나이다. 이처럼 ‘无妄’은 도가에서는 높이

22) 『周易正義』, “无妄者, ……物皆无敢詐僞虛妄, 俱行實理.”

23) 『장자』 「在宥」, “又三年, 東遊, 過有宋之野, 而適遭鴻蒙. 雲將大喜, 行趨而進曰, “天忘朕邪? 天忘朕邪?” 再拜稽首, 願聞於鴻蒙. 鴻蒙曰, “浮遊不知所求, 猖狂不知所往. 遊者鞅掌, 以觀无妄. 朕又何知?””

평가되는데, ‘無妄’을 고평가한 것은 도가만은 아니다. 유가나 다른 학파도 높이 평가하여 상용하였다. 예를 들면, 『大戴禮記』 「衛將軍文子」의 아래 문장이다.

위나라 장군 文子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배웠는데 어찌서 모른다고 하는가?” 자공이 대답하였다. “현인은 망령됨이 없으니 현인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군자는 ‘지혜에는 남을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sup>24)</sup>

여기의 ‘無妄’은 『장자』처럼 깊은 의미가 있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짓/망령됨이 없는 것이 賢人의 태도라고 하여, ‘無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장자』 「在宥」와 마찬가지로 같다. 그 밖에 『管子』 「宙合」에도 비슷한 예가 보인다.

저 五音은 성조를 달리하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는 군주가 내린 명령에는 망령됨이 없고, 따르지 않는 바가 없으니 따르면 명령이 행해지고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중략) 망령됨이 없는 다스림에 근본하고, 변화무상하여 일정하지 않은 일에 운용하여 변화에 응하여 손실됨이 없음을 마땅함이라고 한다. 변화는 다다르지 못할 곳이 없고, 마땅한 바에 응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착오가 생겨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일러 宙合이라고 한다.<sup>25)</sup>

20세기에 들어와서 고고학적 성과에 의해 갑골문이 발견되고 청동기의 발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출토자료에서 얻은 새로운 고대의 지식을 가지고 『주역』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24) 『대대례기』 「衛將軍文子」, “文子曰, “吾子學焉, 何謂不知也.” 子貢對曰, “賢人無妄, 知賢則難. 故君子曰, 『知莫難於知人』, 此以難也.””

25) 『관자』 「宙合」, “夫五音不同聲而能調. 此言君之所出令無妄也. 而無所不順, 順而令行政成. ……本乎無妄之治, 運乎無方之事, 應變不失, 之謂當. 變無不至, 無<不>有應當, 本錯不敢忿. 故言而名之曰宙合.”

그 대표적인 사례로 高亨과 李鏡池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高亨은 “『설문해자』에 ‘妄은 어지럽다는 뜻이다.[妄, 亂也.]’라고 하고, 『廣雅』 「釋詁」에 ‘妄은 어지러워지다는 뜻이다.[妄, 亂也.]’라고 한다. 말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妄言이라 하고, 행동이 타당하지 못한 것을 妄行이라고 하니, 无妄이라는 것은 그 타당, 당연함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한다.<sup>26)</sup> 李鏡池는 ‘亂’과 ‘望’의 양쪽의 의미를 함의한다고 여긴다.<sup>2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전국책』 「楚策四」 및 『사기』 「春申君列傳」은 본卦와 전혀 관계가 없고, 『한서』 「谷永傳」의 ‘无妄’ 즉 ‘无望’은 후대의 재이설에 근거하고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선진시대 『주역』을 논할 경우에 ‘望’설을 따를 수는 없다. 반면에, 『周易正義』 无妄卦의 설은 마왕퇴백서 「昭力」 및 通行本 「序卦傳」과도 합치하고 있고, 또한 위에 인용한 『장자』, 『대대례기』, 『관자』 등 전래문헌자료의 ‘无妄’의 용례로부터도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컨대 본괘의 괄명 ‘忘’은 ‘妄’의 가차자이며, 본 의미대로 석독하면 ‘亡忘’은 통행본과 마찬가지로 ‘无妄’이 되며, “거짓/망령됨이 없이 진실하다”는 의미다.

#### IV. 亡(无)忘(妄)卦 六二 효사 “不靜(耕)而穰(穫)”에 대하여

앞의 <석문>에 제시하였듯이 본 괘의 六二 효사는 “六二, 不靜而穰, 不畲之口, [畲又由遠.]”이다. 이 중 “不靜而穰”은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을 통행본은 “不耕穰”으로 쓴다. 『경전석문』 「周易音義」는 “不耕穰”을 掲出하여 “어떤 주에 의하면 ‘不耕而穰’이라고도 쓰기도 하지

26) 高亨, 『周易古經今注(重訂本)』, 中華書局, 1987, p.232.

27) 李鏡池, 『周易通義』, 中華書局, 1981, p.50.

만, 이는 잘못되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다.”라고 한다.<sup>28)</sup> 이처럼 『경전석문』이 “不耕而穫”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이래(朱子の『周易本義』도 같은 해석),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해석은 “不耕而穫 경작을 하지 않는데도 수확이 있다”,<sup>29)</sup> “不耕穫 경작·수확을 하지 않는다”,<sup>30)</sup> “耕而不(必)穫 경작하지만 수확을 고집하지 않는다”의 세 가지일 것이다.<sup>31)</sup> 그런데, 새롭게 발견된 텍스트인 상해박초간본이 “不耕(耕)而穫(穫)”으로 쓰고, 마왕퇴백서 『역전』 「昭力」이 “无孟之卦, 邑途之義也. 不耕而穫<穫>, 戎夫之義也.”로 쓰고 있다. 이들 출처자료와 아래 인용할 『呂氏春秋』 「貴因」, 『史記』 「越王句踐世家」의 동일 구절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선진시기에는 본 구절을 “不耕而穫 경작을 하지 않는데도 수확이 있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또한, 후술할 『禮記』 「坊記」에는 “易曰, ‘不耕穫, 不菑畲, 凶.’”이라고 하여 본 효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장표현은 둘째 치고, 해석상으로는 “不耕而穫, 不菑而畲, 凶.”이라는 의미다. 참고로 廖名春은 마왕퇴백서 『역전』 「易之義」에 “无孟之卦, (中略)无功而賞, 所以嗇.”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여, 그 “无功而賞”은 本卦 六二의 爻辭에 대응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추측한다.<sup>32)</sup>

본론으로 돌아가 본 효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래문

28) 『經典釋文』 「周易音義」, “或依注作“不耕而穫”, 非. 下句亦然.”

29) 예를 들면 왕필 『周易注』에 “不耕而穫, 不菑而畲, 代終已成而不造也.”라고 한다.

30) 예를 들면 앞에 인용한 『경전석문』 「주역음의」 및 아래에 인용할 『주자어류』 권제71의 주자의 견해 등이다.

31) 예를 들면 『주자어류』 권제71에는 ““不耕穫”一句, 伊川作三意說. 不耕而穫, 耕而不穫, 耕而不必穫. 看來只是也不耕, 也不穫, 只見成領會他物事.”라고 한다.

32) 廖名春, 「楚簡『周易』校釋記(二)」, 簡帛研究網, 2004년 4월 23일.; 『周易研究』, 2004년 제5기, 2004년 10월.

헌자료에서의 “不耕而穫”의 용례를 조사해보면, 『呂氏春秋』 「貴因」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보인다.<sup>33)</sup>

무왕이 鮪水에 이르자, 은나라는 膠鬲을 보내서 주나라 군대를 정찰하도록 하였는데, 무왕이 그와 만났다. 교격이 물었다. “西伯(무왕)께서는 어디로 가시고자 합니까? 저를 속이지 말고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무왕이 대답하였다. “그대를 속이지 않겠소. 은나라로 갈 것이오.” 교격이 물었다. “언제 도착하십니까?” 무왕이 대답하였다. “갑자일에 은나라 교외에 이르러고자 하니 그대는 이를 보고하십시오.” 이에 교격은 떠나갔다. 그 후 연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데도 무왕은 강행군을 계속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군의 참모들이 모두 간하여 말하였다. “병사들이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니 쉬게 해주십시오.” 무왕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미 교격에게 갑자일에 도착하겠다고 은왕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만약 그날 도착하지 않는다면 교격은 신용을 잃게 된다. 교격이 신용을 잃으면 그의 주군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내가 강행군을 하는 이유는 교격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다.” 무왕은 과연 갑자일에 은나라 교외에 도착하였다. 은나라 군대는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은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은나라 군대의 離叛으로 인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무왕의 의로움이다. 무왕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하였고, 주임금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을 하였으니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무왕으로 하여금 경작하지 않고서도 풍성하게 거두게 만든 것이다.**<sup>34)</sup>

여기에서는 武王이 ‘義’를 행했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전쟁에 이긴’ 상황이 묘사되고 있으며, “不耕而穫”이라는 표현은 무왕의 의로움을 높

33) 전한시기 이전의 전래문헌자료에서 “不耕而穫” 및 “耕穫”의 용례는 본 효사 및 본 효사를 인용한 『예기』 「방기」의 구절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34) 『여씨춘추』 「貴因」, “武王至鮪水, 殷使膠鬲候周師, 武王見之. 膠鬲曰, “西伯將何之, 無欺我也.” 武王曰, “不子欺, 將之殷也.” 膠鬲曰, “謁至.” 武王曰, “將以甲子至殷郊, 子以是報矣.” 膠鬲行. 天雨, 日夜不休, 武王疾行不輟. 軍師皆諫曰, “卒病, 請休之.” 武王曰, “吾已令膠鬲以甲子之期報其主矣. 今甲子不至, 是令膠鬲不信也. 膠鬲不信也, 其主必殺之. 吾疾行以救膠鬲之死也.” 武王果以甲子至殷郊. 殷已先陳矣. 至殷, 因戰, 大克之. 此武王之義也. 人爲人之所欲, 己爲人之所惡, 先陳何益. **適令武王不耕而穫.**”

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로, 이 문장 및 이 문장을 포함한 『여씨춘추』 「貴因」 전체에서 『주역』의 사상이나 표현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은 전혀 없고, 또한 특히 “適令武王不耕而穫”의 한 구절에 『주역』 无妄卦 六二와의 관련을 지적한 주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適令武王不耕而穫” 구절은 『주역』 무망괘 六二 효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로, 「貴因」편의 이 武王克殷의 스토리에는 농경에 관한 화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왕을 높이는 “不耕而穫”은 분명히 농경사정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상의 두 점에 근거한다면 “不耕而穫”은 그 안에 본래 구비되어 있던 농경사정에서 이미 분리되어 추상화·일반화가 진행된 뒤에 발생한, 당시 민간에 널리 사용되던 전쟁에 관한 속담이라고 생각된다.(이하에 서술할 『사기』 「越王句踐世家」도 참조) 또한 첫째 사항에 근거한다면 『여씨춘추』 「貴因」의 작자에게는 『주역』을 인용하는 형태로 표명하고 싶다는 각별한 생각이 있어서 “不耕而穫”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널리 인구에 회자되는 당시의 군사 속담을 자연스럽게 기록한 정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史記』 「越王句踐世家」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월왕 無彊이 말하였다. “내가 韓, 魏 두 나라에 바라는 것은 초나라와 무기를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초나라의 성을 공격하거나 읍을 포위하는 것을 기대하겠소? 다만 위나라 군대가 수도 大梁의 성 아래에 병력을 집결하고, 또 제나라 군대가 南陽과 菑 땅에서 훈련을 하여 常과 郟의 국경지대에 집결하는 것이오. 이렇게 하면 方城山에 있는 초나라 군대는 남하할 수 없고, 淮水와 泗水 사이에서 동진할 수 없으며, 商, 於, 析, 鄆, 宗胡 지역과 夏路(초나라에서 중원으로 통하는 길)에서 서쪽은 秦을 대비하지 못하고, 江南과 泗水 유역에서는 월나라를 위협하지 못하게 될 것이오. 즉 齊, 趙, 魏, 韓, 魏 네 나라는 마음대로 초나라를 휘두를 수 있을 것이오. 한과 위 두 나라는 싸우지 않고 초나라의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니, 경작하지 않고서도 풍성하게 거둔다는 것이 되오. 한, 위 두 나라가 이렇게 하지 않고 황하와 화산 사이에서 초나라와 싸워 손상

을 입고 있는 것은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해 초나라를 방어하는 꼴이다. 한나라와 위나라의 그 같은 전술은 명백한 失計이니, 어찌 그렇게 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겠는가?”<sup>35)</sup>

여기에서도 『여씨춘추』 「貴因」과 마찬가지로 군사 작전에서 고생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의 비유로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 “不耕而穫之”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첫째로 이 문장 중에 『주역』의 영향은 전혀 느낄 수 없고, 또한 “是二晉不戰而分地, 不耕而穫之.”와 무망괘 六二 효사와의 관계를 지적한 주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장은 무망괘 六二의 영향 및 인용은 아니다. 둘째로, 「越王句踐世家」의 월왕 無疆의 이 계략에는 농경의 화제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韓나라와 魏나라에게 上策이 되는 전략을 비유한 “不耕而穫之”는 농경사정에 유래하는 말이다. 이상의 2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보면 역시 “不耕而穫之”는 고대 중국에서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던 당시의 군대 속담이고, 「越王句踐世家」가 이 구절을 사용한 것은 越王이 本卦의 六二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민간에 널리 쓰이고 있던 군대 속담을 자연스럽게 인용한 것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양편의 화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본괘의 “不靜而穫”은 지금 인용한 『여씨춘추』 「貴因」·『사기』 「越王句踐世家」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확이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 문장의 “不畜之”도 죽간이 부러져 없어져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不靜而穫”과 같은 취지의 구절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본 효사가 고대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민간

35) 『사기』 「越王句踐世家」, “越王曰, “所求於晉者, 不至頓刃接兵, 而況于攻城圍邑乎. 願魏以聚大梁之下, 願齊之試兵南陽·莒地, 以聚常·郟之境. 則方城之外不南, 淮·泗之間不東, 商·於·析·鄆·宗胡之地, 夏路以左, 不足以備秦, 江南·泗上不足以待越矣. 則齊·秦·韓·魏得志於楚也, 是二晉不戰而分地, 不耕而穫之. 不此之爲, 而頓刃於河山之間以爲齊·秦用, 所待者如此其失計, 奈何其以此王也.””

의 속담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효사의 유래에 고대 사회에 사용되던 속담이 있다는 것은 이미 本田濟의 연구에 의해 입증되어 있다.

새로운 筮法을 위한 六爻의 형태가 만들어져 문구의 필요가 생겼을 때 그 때까지 전해져 온 뽑기 占의 문구, 卜辭의 나머지, 거기에 성어, 속담 부류를 더하여 6개로 나누어 할당하고, 또 6개가 되지 않는 것은 만들고, 드물게 6개에서 넘치는 것은 다른 패에 무리하게 밀어 넣어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효사인 것이다.<sup>36)</sup>

더구나 마왕퇴백서 『역전』 「昭力」의 “경작하지 않고도 수확이 있다는 것은 군대의 도의다.[不耕而權<穫>, 戎夫之義也]”라는 구절과 위의 『여씨춘추』, 『사기』의 설화를 아울러 생각하면, 전국시기 말기부터는 无妄卦 六二의 구절을 戰爭事情·전쟁론의 시각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不畜之□”을 살펴보겠다.<sup>37)</sup> ‘畜’은 같은 자형의 글자가 郭店楚簡 『六德』 제15호간·제20호간, 上海博楚簡 『民之父母』 제14호간, 同 『주역』 제30호간, 同 『內豐』 제3호간·제5호간에 보이고 있으며 이상의 예에서 모두 ‘畜’으로 읽히고 있다. 따라서 ‘畜’을 ‘畜’의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자는 통행본 『주역』의 해당 부분에는 ‘蓄’로 쓰여 있는데, 曉(透)母, 覺部자인 ‘畜’과 精母, 之部자인 蓄는 음이 떨어져 통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如字로 읽고 ‘(가축을)기른다·사육한다’의 뜻으로 본다.

한편 濮茅左는 본 구절 아래의 缺字로 “則, 利有攸往”을 보충하고 있지만, 본 구절은 통행본과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통행본에 의거하여 그대로 “則, 利有攸往”을 보충할 수는 없다. 廖名春은 마왕퇴본과 부양한

36) 本田濟, 『易學-成立と展開』, 平樂社書店, 1994, p.39.

37) 濮茅左는 ‘畜’을 ‘畜’으로 예정하지만, [도판]에 의하면 ‘畜’으로 예정하여야 한다.

간본(실제로는 부양간본에 이 부분이 없다)이 “不蓄餘”로 쓰고 있는 것에 착목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여기에 의거하면 아마도 ‘畜’는 본래 의미를 가지는 글자가 아니라 가차자인 듯하다. 『설문해자』 「食部」에 “餘는 넉넉하다는 의미이다. 食을 구성요소로 하며 余가 소리요소이다.”라고 하여, ‘餘’의 본래 뜻이 풍요임을 알 수 있다. 마왕퇴백서본, 부양간본의 ‘餘’자가 사실은 본래 경문의 글자이다. 이로 보면 상해박초간본의 “不畜之”의 뒤에는 ‘餘’자를 보충해 넣을 수 있다. “不畜之餘”는 즉 “不畜而餘”와 같은 구문으로 ‘之’와 ‘而’는 의미가 같다.<sup>38)</sup>

廖名春의 주장 중에서 “不畜之□”가 윗 구절의 “不耕而穫”과 같은 취지라고 하는 것은 긍정할 수 있다. 즉 ‘畜’는 ‘畜’의 異體字로 기르다, 양육하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不畜’은 ‘목축을 하지 않았는데도’라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之’는 廖名春의 주장대로 ‘而’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吳昌瑩 『經詞衍釋』 卷9는 “之, 猶而也.”라고 한 다음 많은 예를 들고 있다.<sup>39)</sup> 그밖에도 『시경』 「鶉之奔奔」의 “人之無良”을 李富孫의 『七經異文釋』은 “韓詩外傳作人而.”라고 하고, 『초사』 「離騷」의 “后辛之菹醢兮”를 주자 『초사집주』는 “之, 一作而.”라고 하며, 『전국책』 「趙策一」의 “臣主之權均之能美.”를 吳師道注는 “外記之作而.”라고 한다. 이들 용례로 보아 고대에는 ‘之’와 ‘而’가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廖名春이 “不畜之□”의 ‘□’부분에 ‘餘’를 보충해 넣은 것은 근거가 없어서 따르지 않는다. 아마도 가축이 번식한다는 의미의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안이하게 보충하지 않고, 缺字 그대로 처리해 두기로 한다.

38) 廖名春, 앞의 논문.

39) 吳昌瑩, 『經詞衍釋』 卷9, “之, 猶而也. 檀弓曰, “不得已則吾欲以二子者之爲之也.” 言欲以妻與宰二子而爲殉也. “脯醢之奠.” 言而奠也. 雜記篇, “宦於大夫者之爲之服也.” 言宦於大夫家而爲大夫服也. 仲尼燕居篇, “卽事之治也.” 言卽事而治也.”

한편, 『禮記』 「坊記」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상견할 때, 초대면의 예를 마치고 이어 폐백을 주는 까닭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행하고 재물은 나중으로 돌리는 것을 백성에게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재물을 먼저 취하고 예를 뒤로 돌려버리면 백성들은 이익을 중시하게 된다. 만약 사양을 가벼이 여기고 욕심껏 행동한다면 백성들은 서로 싸우게 된다. 그 때문에 군자는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받지 않는다. 『역』에 ‘경작하지 않았는데도 수확을 얻고, 1년 된 밭을 김도 매지 않았는데도 2년간 경작한 밭을 가지게 되는 것은 흉하다.’라고 한다. 이처럼 가르쳐서 백성들의 잘못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재물을 중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한다.”<sup>40)</sup>

이 문장에서는 无妄卦 六二의 효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통행본의 “則利有攸往”이라는 긍정적인 占斷句 대신에 『주역』에서 가장 부정적 占斷語인 ‘凶’을 붙이고 있다. 상해박초간본과 부양한간본에는 이 부분이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凶’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해박초간본의 결실 공간으로 보면 약 4글자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凶’ 1자가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마왕퇴백서본에는 ‘利’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선진시기에 본 구절의 經文은 ‘凶’이 아니라 ‘利有攸往’으로 쓰여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기』 「坊記」 윗 문장의 요지는 鄭玄注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백성’이 재물을 중시하여 예의를 뒤로 돌려 덕행을 소홀히 하여 탐욕에 빠지는 것을 ‘막기[坊]’ 위하여, ‘군자’는 술선수범하여 ‘예를 앞세우고 幣帛을 뒤로 하며, (중략) 예를 앞세우고 재물을 뒤로 하고, 情(물욕)을 억누르고 辭(사양)가 있다’는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위 인용문은 이러한 취지를 경전인 『주역』의 무망괘 六二를 인용하여 주장하는

40) 『예기』 「坊記」, “子云, “禮之先幣帛也, 欲民之先事後祿也. 先財而後禮, 則民利. 無辭而行情, 則民爭. 故君子於有饋者, 弗能見, 則不視其饋.” 『易』曰, “不耕穫, 不菑畬, 凶.” 以此坊民, 民猶貴祿而賤行.”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시기 이전의 『주역』은 원래 유교 경전이 아니라 민간의 占筮書였고, 무망괘 六二효의 경문도 민간에 널리 쓰이던 속담에서 유래하는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지 않는데도 수확이 있다는 불로소득적인 내용을 단순히 그리고 소박하게 “利有攸往”이라고 하여 긍정·칭찬하고 있었다. 그런데 「坊記」가 저술되었을 시기(전국말~전한초기)에는 이미 『주역』은 유교경전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러한 『주역』 무망괘 六二효의 경문을 본래대로 해석·인용하여 불로소득을 권장하는 일은 『예기』 「坊記」편의 작자에게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坊記」편의 작자는 별로 교훈적이지 못한 “利有攸往”이라는 占辭를 정반대의 ‘凶’이라는 점사로 치환하여, 본효의 의미의 해석을 180도 역전시킴과 동시에 경문까지도 변경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원래 민간의 占筮書였던 『주역』을 儒家가 경전으로서 받아들인 뒤, 그 내용을 儒家道德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새로 해석하고, 동시에 표현의 변경까지도 행하였던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凶”으로 개작한 텍스트가 소멸한 이유로는 당시에 이미 “利有攸往”이라고 쓰는 텍스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 V. 출토자료 『주역』과 문헌자료 비교 연구의 가능성 -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으로 상해박초간 『주역』과 통행본 『주역』의 무망괘 속에 보이는 異文을 분석함으로써 고대 『주역』의 실상과 그것이 유교화 되는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의 전래 문헌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러 고대 문헌에서 『주역』을 인용한 내용, 혹은 인용표시가 없더라도 괘효사와 동일한 구문이 등장하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선진시기 『주역』의 실상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출토

자료 『주역』의 출현함으로써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고대 경전, 서책의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끝맺음하고자 한다. 현행본 『예기』 「緇衣」에는 아래와 같은 문장이 있다.

공자 : 남쪽 사람들이 “사람이면서 그 행동에 일정함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복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일 것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거북점·시초점조차 그 앞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경』에서 “(너무 자주 점을 치니) 내 거북도 이미 염증을 내고, 내게 점친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네.”라고 하고, 『상서』 「열명」편에서 “(임금은) 잔(혹은 관직)을 악덕한 사람에게 내려서는 안 되니, 만약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그 사람을 세워 바르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인물이 전문가로서 제사를 담당하면 귀신에게 불경한 것이 된다. 이 사람이 일을 하면 번잡해져서 어지럽게 되고, 귀신을 섬기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고, 『주역』 恒卦에 “그 덕을 항구히 하지 못하면 치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덕을 항구히 하여 고집한다면 부인은 길하고 남자는 흉하다.”라고 하였다.<sup>41)</sup>

『예기』 「緇衣」는 郭店楚墓에서 발굴된 죽간에서도 발굴되어 공표되었다. 이른바 관점초간 『緇衣』인데 위의 인용문 또한 그 속에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2)</sup>

子曰, 宋人有言曰, “人而亡恆, 不可爲卜筮也.” 其古之遺言與. 龜筮猶不知而況於人乎. 『詩』云, “我龜既厭, 不我告猷.” ■ (郭店楚簡 『緇衣』 제45호간~제47호간)

41) 『예기』 「치의」, “子曰, 南人有言曰, “人而無恆, 不可以爲卜筮.” 古之遺言與. 龜筮猶不能知也, 而況於人乎. 『詩』云, “我龜既厭, 不我告猷.” 「兌命」曰, “爵無及惡德, 民立而正. 事純而祭祀, 是爲不敬. 事煩則亂, 事神則難.” 『易』曰, “不恆其德, 或承之羞. 恆其德貞, 婦人吉, 夫子凶.””

42) 관점초간 『緇衣』의 도판 및 석문은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文物出版社, 1998.)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상해박초간에도 『緇衣』가 수록되어 있다.<sup>43)</sup>

子曰, 宋人有言曰, “人而亡恆, [不可爲卜筮也.] □□ (中略)云, “我龜既厭, 不我告猷.” ■ (상해박초간 『緇衣』 제23호간~제24호간)

이 세 가지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지만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통행본 『예기』의 문장에서는 『시경』, 『상서』 「열명」, 『주역』 恆괘가 인용되고 있지만, 광점초간 『치의』에는 오직 『시경』만이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상해박초간 『치의』는 결손 부분이 많아서 알기 어렵지만, 역시 『시경』만 인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상세한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하지만 한 가지 점만 언급하자면 이 인용을 통해 『주역』에 대한 전국시대의 관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계속 발견될 것이고, 이들을 비교, 분석해 나간다면 전국시대 『주역』의 실상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3) 상해박초간 『緇衣』의 도판 및 석문은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上海古籍出版社, 2001.)에 수록되어 있다.

<도판>



상해박초간 『주역』 제20호간



상해박초간 『주역』 제21호간

<參考 文獻>

1. 상해박초간 『주역』 도판 및 석문고석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上海古籍出版社, 2003년)에 수록된 『주역』 「圖版」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에 수록된 濮茅左의 「釋文考釋」

2. 원전자료

近藤光男 譯, 『戰國策』, 集英社, 1975.

戴 德 撰, 『大戴禮記』, 文淵閣四庫全書128, 商務印書館, 1983.

黎翹鳳 撰, 『管子校注』, 中華書局, 2009.

黎靖德 撰, 『朱子語類』, 中華書局, 1986.

陸德明 撰, 『經典釋文』 「周易音義」, 中華書局, 叢書集成初編, 1985.

馬承源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一)』, 上海古籍出版社, 2001.

班 固, 『漢書』, 中華書局, 1962.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59.

阮 元, 『十三經注疏 (1)』 『周易正義』, 中文出版社, 1971.

——, 『十三經注疏 (6)』 『禮記正義』, 中文出版社, 1971.

李鼎祚, 『周易集解』, 中國書店, 1984.

池田知久 譯, 『莊子』, 學習研究社, 1983.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 學林出版社, 1984.

許 慎 撰, 徐鉉 校定, 『說文解字』, 中華書局, 1963. 12.

荊門市博物館, 『郭店楚墓竹簡』, 文物出版社, 1998.

3. 연구논저

季旭昇 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三)讀本』, 萬卷樓, 2005.

高 亨, 『周易古經今注(重訂本)』, 中華書局, 1987. 3.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商務印書館, 2010.

廖名春, 「楚簡『周易』校釋記(二)」, 『周易研究』 2004년 제5기, 2004. 10.

- 李鏡池, 『周易通義』, 中華書局, 1981.
- 濮茅左, 『楚竹書『周易』研究』上/下, 上海古籍出版社, 2006.
- 本田濟, 『易學-成立と展開』, 平樂社書店, 1994.
- 吳昌瑩, 『經詞衍釋』, 『字典彙編』22,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 王 輝, 『古文字通假字典』, 中華書局, 2008.
- 원용준, 「上海博楚簡『周易』의 부호와 그 의미」, 『한국철학논집』 제30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0. 9.
- 張政烺, 『馬王堆帛書周易經傳校讀』, 中華書局, 2008.
- 池田知久 監修, 大東文化大學上海博楚簡 編, 『上海博楚簡の研究(二)』, 大東文化大學上海博楚簡研究班, 2008. 3.
- 韓自強, 『阜陽漢簡周易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4.

### Abstract

*Study on Wu Wang(无妄) Hexagram of the  
shanghaibochujian-Zhouyi(上海博楚簡周易) / Won Yong Joon\**

This paper restores the original text of Zhouyi(周易) in the pre-Qin period and investigates its meaning based on the cultur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at the time through contemplating Wu Wang(无妄) of the Shanghaibochujian-Zhouyi(上海博楚簡周易) discovered in an antique market in Hong Kong in 1994.

Wu Wang(无妄) of the Shanghaibochujian-Zhouyi(上海博楚簡周易) is composed of two bamboo slips, slip 20 and 21. The slip 20 is broken and missing about 13.7cm. It is estimated that the slip contained 16 characters: □, [禾又鹵蓬. 六晶, 亡忘之彘, 或繫之牛, 行].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views on the meaning of “Wu Wang(无妄).” According to Zhaoli(昭力) of Yi Chuan(易傳) in Mawangdui Silk-Manuscripts (馬王堆帛書), standard edition of Xu Gua Chuan(序卦傳), Zhouyi Zhengyi(周易正義), and other textual materials, “Wu Wang(无妄)” of Zhouyi in pre-Qin means “sincere without lies.”

Yaoci for Six in the second place(六二 爻辭) of Wu Wang(无妄) on the Shanghaibochujian-Zhouyi says “不耕而穫.” Standard edition of Zhouyi, on the other hand, says “不耕穫.” It has been confirmed that “不耕而穫” was written in the Zhouyi in the pre-Qin through quotations from Zhaoli and Yizhiyi(易之義) of Yi chuan in Mawangdui Silk-Manuscripts, and standard edition of Fangji(坊記) of Liji(禮記). This phrase is regarded as a war-related proverb used widely from the Warring States to early Former Han, on the

---

\*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 museo88@hanmail.net

process of generalization and abstraction emerged in the farming community. Therefore, the phrase can be specific evidence to prove that some line statements of Zhouyi were originated from sayings of ancient societies. Also, Confucian scholars in the Han dynasty attempted to change the sentence of the classic to an instructive lesson that seeking unearned income is ominous because the original one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unearned revenue. This means that original hexagram and line statements unrelated with Confucianism was reinterpreted, and sometimes modified,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Zhouyi as one of the Confucian classics.

**【Key words】** Zhouyi, Wu Wang(无妄), Shanghaibochujian(上海博楚簡), Mawangdui Silk-Manuscripts(馬王堆帛書), Confucianism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